

젊은이 페이지 (청년부)

Q.T.

새사람을 입으라

68동기 김은 경

본문: 에베소서 4장 13-24절

* 내게 주시는 교훈

1) 연합: 성장은 혼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와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요동치 않고 사람 안에 참된 것을 행하며 법사에 우리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하는 것이다. (13-1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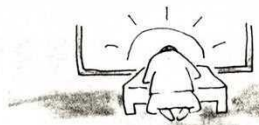
2) 거룩한 삶: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 Q.T.를 통하여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한 것을 행하여 감과 있는 자 외에 방탕하며 욕심으로 행하는 성품을 버린다. (17-24절)

* 적용 1.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선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날마다 온전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과의 교제밖에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계몽과 불명확하는 마음 때문에 저는 Q.T.를 하지 않았고 저의 삶은 어느새 제 자신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 대한 감과 없이 허망한 것을 좇으며 욕심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얼마 전 다음주에 있을 아의 활동을 위해 맞사지를 받으려 갔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곳에서 하라는 대로 비싼 돈을 지불하며 맞사지를 받았었습니다. 평소에 얼굴에 난 여드름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한두 번 안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에 혹하여 결혼 때까지 맞바 돈 할 것까지 모든 금액을 지불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나이지기는커녕 오히려 피부가 더 빨개지며 간지럽기까지 하였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니 내가 너무 감정에 이끌려 분별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여드름이 아무런 좋은 맞사지를 받는데도 해도 한 번에 나올 수 없는 것이 상식인데 저는 아무런 지혜 없이 욕심에 이끌려 비싼 돈만 지불했던 것입니다.

(기도) 날마다 삶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에 두어 허탄한 것을 좇지 않고 모든 일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행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 적용 2.

어떤 전도사님과 전화통화를 인하여 너무 한 쪽에 치우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결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돌보아야 할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좀더 기도하지 못했고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기도 제목의 전부는 결혼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지체들과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에 집착하고 내 자신만을 생각할 때 결코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삶은 결코 혼자서만 성할 수 없고 지체를 서로간에 영향을 주고 받게 되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기도) 결혼 준비하는 데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돌보아야 할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와 관심과 편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젊은이의 생각

IMF시대의 선교

70동기 최필선

이런 글을 실어 보리에서 접어두었던 격정과 한숨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이제 지긋지긋해질 법도한 IMF라는 이라기를 꺼내게 되는 것이 죄송스럽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국가적 파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의 근본은 외환부유고에 바닥났으며 초래된 일이다. 96년 말까지 1불당 약 850원 하던 환율이 지금은 1600원을 주고도 1불짜리 지폐 한 장 살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많은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차례로 쓰러지고 있다. 그나마 현재 살아 남아 있는 기업에서도 제 살을 깎아내려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이발식으로 덩치만을 키우며 내일없는 안이한 경영을 해오던 기업들이 인원과 조직을 축소하고 수익성없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군살빼기 과정은 전 사회에 걸쳐 실행 및 불황이라는 고통을 겪게 했으며 당분간 계속되리 것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좀더 일찍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리한 제종 감량과 IMF라는 급격한 외부 힘에 의해 고통이 훨씬 컸다. 역사적 오명을 마음 한 구석에 짊어졌던 한 시대의 사람으로서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라도 이런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한다면 이전보다 좀더 견실하고 효율적인 경제체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선교에 있어서도 이러한 위기상황은 다가왔다. 선교 사역을 위한 수입이 2~3개월만 안되는 짧은 기간에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선교 구조조정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한국으로 오지에 나가 있는 상당수의 선교사가 귀국하고 있다. 이것은 이때까지 해왔던 공든 탑이 허물어지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지혜롭게 위기를 잘 활용한다면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선교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선교 활동은 (내외적인 많은 경계에도 불구하고) 교회, 교단, 선교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력과 전략의 부재로 중박배치와 과잉투자 등 방만한 운영을 해왔다. 다분히 전시 효과를 노린 행사성 선교운동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부터는 보다 잘 준비되고 자력이 갖추어진 선교사를 필요한 요지에 배치하여 사업 위주 아닌 전도와 교회 개척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 어려운 시기가 교회와 교단, 선교기관과의 상호 협력으로 선교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계기가 되리라 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국난 극복의 해결책으로 정부, 민간기업, 가계, 교회 등 너나 할것없이 모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는 어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기)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허리띠 졸라매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줄여야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우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만약에 정부가 긴급재정을 한다면 유독 장애인이나 고아, 절대빈곤 계층 등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우선적으로 삭감한다면 과연 국민을 위한 긴급재정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선교사에 대한 선교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교회와 개인 후원자가 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물론 필요한 경비는 줄여야겠지만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망이 이러한 한과 속에 자칫 식어지고 가계부 지출난의 하위항목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선교 지원활동을 불모지인 활동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그저 시행하는 잉여 활동으로 인정해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의 진정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어쩌면 경제난국이 우리의 진정한 선교적 헌신과 동인을 드러내게 하고 성찰하게 하는 역설적 기회가 될지 모른다. 풍요로울 때나 빈곤할 때나 세계성이라는 우선순위에 믿음의 선배 바울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충성한 선교인들이 모였든 마게도나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보자. 또한 복미주교는 두 차례나 경제공황을 겪으면서도 금세기 세계 선교를 뜻으로 주도로 오고 있음을 상기하자. 경제 위기로 선교사까지 부도가 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이러한 사회 여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는 소식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소식은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훈훈하게 해준다.

취재수집 510



민장: 청원 자매, 예비조장학교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청원: 그게 뭔데요?

민장: 청원1부에서 앞으로 조장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과 조장의 역할을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청원: 그데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예비조장학교 일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민장: 으음, 예비조장학교는 2월 14일 여는 예배로 문을 열었는데, 매주 토요일 늦은 6시 교육관 5층에서 4월 11일까지 할거예요.

청원: 그런데요.

강사님은 어떤분인지 궁금해요.

민장: 허용구 전도사의 첫수업으로 시작하여 송원석 전도사, 정갑진 목사, 상담심리 수업의 이찬욱 집사를 비롯하여 김필수 목사까지 다양한 강사진이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청원: 준비물은 없어요?

민장: 특별한 준비물은 없구요.

특히나님 화한 열심과 기도로 준비하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민장: 먼리회장의 졸업말

청원: 청원1부 회원의 졸업말

이제 예비조장학교 광고 맞아요? !!!

수련회를 다녀와서

신약 1독 통해 주님의 주님되심 깨달아

정 다은(중동2부)

이번 수련회는 너무 뜻깊었다. '신약성경 일독'이라는 목표 아래 정말 열심히 읽었던 우리. 때로는 졸고 때로는 실종이 나기도 했지만 다 읽고 난 다음에 느낀 뿌듯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정말 살아 계신 주님을 느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했다. 성경 1독을 하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

산상기도회때는 정말 눈물로 기도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큰 소리로 아뢰었다. 정말 나에게 주님 밖에 없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수련회를 마련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 부흥회를 통해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사귀고 사랑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회개하였다. 사람들을 미워하

고 내 가치관에 따라서만 무었이든지 하려 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그 말씀을 들은 후 친구들에게 사랑한다고 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었던 친구들에 대한 마음을 친구들에게 고백했고 또 용서를 빌었다. 그 순간 마음이 개운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모두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느꼈 수 있었다.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주제가 열린 이번 겨울수련회를 통하여 나의 생활이 새롭게 변화되었다. 중학교에 올라와서 많이 들어온 큐티(QT, 말씀 묵상, 경건의 시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첫째날 있었던 큐티 워크샵 시간에 강의와 친구의 간증을 들어보니 '왜 나는 큐티 생활을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큐티라는 것을 집해 보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큐티 생활에 대해 조금씩 이해가 가면서 큐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찬양시간에는 대학부, 고등부 선배들이 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여러 가지 음향효과까지 동원하여 함께 찬양한 우리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는다. 공동체 훈

련을 통해서도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고, 특히 샌드위치 만들기 시간에는 서로 준비해온 재료들을 이용해서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함께 나누었다.

선택특강 시간에는 '청소년과 선교'라는 주제로 김윤경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었다. 장래의 희망이 선교사인 나는 그 어느 시간보다도 이에 많은 기대를 갖고 열심히 들었는데, 선교에 있어서도 역시 큐티, 기도,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선교에 대한 비전을 더욱 확실하게 다지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부흥회는 정말 나의 생활에 변화를 준 시간이었다. 그중 두번째 부흥회때의 신앙고백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것이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도 마음 속에 깊이 깨달았다.

수양회가 끝나고 나의 생활에 대해 반성하고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아직은 너무나도 미숙하고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번 수련회의 주제처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나를 향신하 하고 나만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생활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단 시리즈 6

사벨리안주의 (Sabellianism)

정 현 민(목사, 16교구·장년3부·별전전도회·도사정학회 지도)

사벨리안주의는 AD 234세기경에 이단설을 가진 여러 지도자들에 의해 발생했으며 그 중심 인물은 사벨리우스(Sabellius)입니다. 사벨리안주의는 한 마디로 '양태론'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양태론은 그리스도 안에 성부 자신이 나고, 고난을 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위격에 대한 명칭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과 이후 관계를 나타내는 것뿐이며, 따라서 성부 자신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은 아버지이며 인성은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벨리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한 하나님이며, 따라서 세 이름은 하나의 동일한 본체의 세 형태이기 때문에 삼위는 하나의 신적 본질에서 나온 세 얼굴로써 하나로 나타나는 모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양태론은 삼위의 본질이 일체를 이룬다는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오직 한분이라는 단일신론(아리우스주의)과 서로 공통되지만, 하나님의 단일성을 강

조하기 위하여 아리우스주의와 같이 성자와 성령을 하나님의 본질 밖에 두지 않고 그 안에 두되, 삼위의 구별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점에 있어서 아리우스주의와 다른 이단입니다.

이 양태론은 성부고난설, 성부속설, 범신론적 계승설, 이원론적 가족설, 계시양태설, 범신론적 과정설 등 다양한 학설이 있으나 모두 위격 사이에 영원한 구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설 가운데 여기서는 성부고난설과 계시양태설을 다루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부고난설은 양태론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난 설인데 노에투스(Noetus)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이 학설은 한 본체가 삼위의 양태로 나타나다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주제가 되어서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들로 태어나셨으며, 이 아들은 성부에게서 나오신 다른 위격이 아니라 바로 성부 자신이며 단지 그 이름만이 다른 뿐이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분은 성부 자신이며, 부활하신 분은 만물의 아버지 하나님이

시라는 것입니다. 성부고난설을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 프락세아스(Praxeas)는 '성부 자신이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고, 자신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참으로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말씀과 영을 무인격적인 지혜 혹은 능력으로 피조된 존재로 보았다면, 이 성부고난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부 자신이 성육신하신 분으로 성부 자신의 모습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 보이셨다고 주장하는 점에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성부고난설은 노에투스, 프락세아스, 베리우스, 사벨리우스에 의해 주장되었던 교회는 이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고 강력한 비판을 가했으며, 4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이 성부고난설은 자취를 감추어집니다.

둘째, 계시양태설은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에 삼위는 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모양이며 성부, 성자, 성령은 이러한 계시의 모양(Modi)에 대한 명칭에 불과하다고 주장

하는 학설입니다. 이 설은 삼위는 오직 하나의 신적 본체가 나타나는 모양에 불과하다는 입장이태설(一位三態說)인데, 여기서는 특히 위격의 존재 양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위일체론을 변호한 힐라리우스(Hilarius)는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으로 계시는 것이지만 위격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벨리안주의는 하나님은 오직 한 위격뿐이며, 삼위는 동질, 동격이며, 하나님 자신 안에서 존재론적인 변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은 단일이라는 합리주의적 단일신론 위에 비합리적 변론을 하여 다양한 주장들을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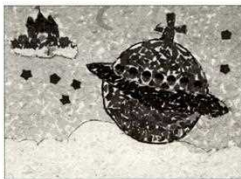
지체들 소식

▶ **영아부** / 지난 2월 23일, 24일 영아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라는 주제로 겨울 성경학교를 열었다. 복잡한 교통길을 헤치고 도로, 인진, 산골, 평촌, 일산 각 지역에서 아기를 안고, 업고 오는 할머니, 고모, 이모 등 아기를 신장도로 바르게 지라게 하기 위하여 모였다.

첫째날 아가들은 먼저 예쁜 마음으로 두 손 모으고 겨울 성경학교에 참석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설교시간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2부 놀이 시간에는 찬송부르기에 많은 영아들이 참석하여 다 잊지 못해도 용기를 내어 부르는 모습이 좋았다. 아기를 보행기 타기 대회에는 이미 보행기를 졸업한 아가들이 서로 타려는 모습에서 우리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특강 시간에는 종이접기를 마련하였다. 아기를 데리고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번거로움이 없지 않았지만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쏟고 작품을 완성하니 모두들 즐겁게 하며 시간이 주어진다며 더 배우고 싶어 하였다.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는 영아부 아가들을 볼 때 교사로서 힘이 난다. 둘째날은 항상 기뻐하고 웃어 달고 기도하며 병사아에 감사하고 오만반의 기도 응답받은 종이 풀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 2부 순서의 만들기 는 밀가루를 반죽하여 하나님을 주인 풀, 꽃, 나무 등을 만들어 보았고, 종이를 만든 물고기 모양에 벌레로 옷을 입혀 아가들 방에 모빌로 쓸 수 있는 장식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 시간인 그림 성구(달란트 비유)는 4명의 교사가 특색있는 목소리로 진행하였다. 예쁜 눈으로 그림을 보고 작은 귀로 듣는 아가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이틀간 화창한 날씨에 맞춘 영의 양

식, 육의 양식을 풍족히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린다. (송혜경 통신원)

▶ **초등부** /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한 겨울성경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교회를 느낀 대로 표현하도록 하는 특별활동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 좋은 작품을 뽑아서 시상했습니다. 오늘(3월 8일)은 어린이들이 표현한 작품들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이며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가'하는 주제를 놓고 토론하며 어린이들의 교회관을 들여볼 예정입니다.



▶ 초등부 성경학교에서 어린이들이 교회에 대한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한편 매주 토요일에는 노년, 학동, 역삼초등학교 앞으로 학원전도를 나갑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전도되어 초등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교회와 거리가 멀고 큰 길을 여러번 건너야 하는 등 교통편이 불편한 관계로 뒷받 나오기가 어려운 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초등부에서는 차량봉사 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합차로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노년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12시 30분에 교회에서 다시 노년초등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는 일입니다. 뜻이 있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라드립니다.(연락처 : 이실호 부감 집사님, 구내전화 443). (이소정 통신원)

▶ **중등1부** / 오는 3월 29일 11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학부형 초청기도회를 갖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들으며 그들을 위해 드려주는 기도를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담임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자녀들의 신앙 생활에 대해 하심단회한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학부형 초청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선아 통신원)

▶ **신촌장터부** / 3월 15일 오전 10시 50분 신촌가정부실에서 김병태 목사를 강사로 하여 '부부 갈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한다.

▶ **15교구** / 매주일 오후 2시 배다니홀, 각자 모두 주일 예배와 봉사부서에서의 활동을 마친 후 모여드는 반가운 얼굴들의 인사소식, 안부소식, 정겨운 웃음소리와 말없는 미소로 머금은 얼굴과 얼굴들의 반가운 교제의 현상은 두터운 외투를 벗어버린 따뜻한 옷차림 만큼이나 여기저기 생명의 약동들 들는 새 생동감이 넘친다. 찬송을 인도하는 집사의 피로한 솔로 찬송은 4절을 부를 때 즈음 이에 동참하는 차츰 찬송반 분위기로 바뀌지만, 조용중용한 지명방 송들은 소곤소곤 그림 줄 모르고 시간관상상 더 양보할 수 없는 듯 "지금은 내가 이야기할 시간이에요. 조용히 주세요." 하는 교구 장로님의 소리에 교구 모임은 시작된다. 매주 듣는 메시지가 건만 지친 나그네에게 시원한 냉수를 제공하는 웅장설침령 정신을 맑게 하고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을 전하시는 길인 식 목사님, 뒤이어 새가족 환영회로 새가족을 소개하는 시간, 오인숙 전도사

님의 얼굴에 웃음 꽃이 피었다. 지역별로 일어나서 환영하며 반갑다고 작작씩, 여기저기 울음 새색들과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터지나를 생명의 행진을 기대해 본다. (한숙정 통신원)

▶ **춘천북지관** / 제14회 2월 20일 교육재활과 아동들의 제14회 졸업식 및 재물전자를 가졌다. 올해 7명의 아동들이 졸업을 했는데 교사들과 부모님들의 노력의 결과로 모두들 일반 유치원과 일반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특히 이흥성 목사가 졸업생 한 사람씩을 직접 안아 주며 안수기도하고 이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이어 진행된 재물전에서는 교육재활과 교사들과 아동들이 1년 동안 배운 내용들을 발표하였다. 또한 28일에는 제1회 직업재활주요식 행사도 가졌다. 95년 개관한 이래 첫 주요식이었었는데, 모두 14명의 취업담당관 훈련생들이 수료생 됐다. 이들 중 현재 8명이 정수기 펌터공장, 만두공장, 봉제공장 등에 취업되어 일하고 있다. 한편 3월 3일에는 제3회 직업재활임소식이 진행되었는데 올해 복지관에는 또 다른 새로운 훈련생들이 입소하여 약 90여명의 훈련생들이 훈련 및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 2월 20일 춘천북지관 졸업식 이후 미려한 재물전서.

새벽기도회에 참여하고나서

잔잔한 평온 깃드는 은혜의 시간

이 용수(집사, 10교구)

눈을 떠보니 새벽 3시 30분이었다. 전날밤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는 아홉이 모처럼 약속한 티인저리 불평없이 모두들 일어났다. 보통때 같으면 집을 나서기 전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터전으로 가지던 오늘날은 생략하고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막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아내 녀석이 자기 안경이 없어졌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욕심까지 열여보며 찾고 다닌다. 평상시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꼭 무슨 일이 있어 아더를 가려고 하면 엉뚱한 일이 생겨 얄미운 생각이 든다.

오랜만에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아내 안경 때문에 또 못가나 하고 망설여지는데 이때 갑자기 '하나님도와 주십시오. 새벽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아내 녀석의 안경을 찾아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하 마음 속에서 일어났다. 그러자마자 아내 녀석이 '안경 여기 있어요. 이제 교회에 가세요, 아버지.' 하는 것이었다. 우리 가족

은 그 소리에 안심하고 교회를 향해 달렸다.

무엇인가 잔뜩 회망을 가지고 교회로 보살피고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금일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험난한 세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굳건한 새 힘과 믿음을 달라고 마음속으로 간구하면서 서둘렀다.

교회에 도착하니 4시 30분. 목사님들 비롯해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벌써 오셔서 교회 속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 찬송가 212장(산 성결기 위해)과 218장(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를 부르고 나니 한결 마음이 뜨거워졌다. 교회 안은 너무 조용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잠음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말속에 감동되어 각자의 간구하는 음성은 웅장속치는 불길 같은 분위기였다.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습니. 회개한 죄도 별로 없고 남을 위해 봉사한 죄도 없습니. 나만 잘

났다고 뽐내며 고개 숙여 사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잔잔한 후와 같이 차분해졌다.

어느 사이 시간이 흘러 시계를 보니 5시 40분. 이 상태로 또 시계를 보는 마음이 간절했던 주어진 현실, 삶의 현상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가 주는 새벽미는 신사 위에 떠 있는 은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굳건하게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힘있게 달려갔다.



3월 15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2부예배

비이율민 이수철
(파이노 / 피조) / 최경태
아현양태미 지희
(찬양곡목)

하나님의 어린 양
성찬
위에 계신 나의 친구(97장)
내 기도하는 시간(한 482장)

3부예배

태너 김진현
(오르간 / 조현영)
한현우(아현양태미 솔로리스트)

새로 사랑하
주기도
예수 나를 위하여(144장)
내 주의 보혈은(한 186장)

4부예배

태너 김진현
(오르간 / 조현영)
한현우(아현양태미 솔로리스트)

(찬양곡목)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한 318장)
내 영혼이 손을 힘어(한 495장)
주 날기 밀리라 편한 위대(한 478장)

저 보혈을 위하여(한 543장)
나 가나안 복자 된 성(한 221장)

5부예배

트윈본 김은미
(파이노 / 민희영)
대원(아현양태미 솔로리스트)

(찬양곡목)
신앙하심 하나님
주께 가오
내 주는 강한 성이요(한 384장)
내 평생에는 기쁨(한 470장)
나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행 20:9)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98 구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영·육이 가난한 모든 자에게 관심 쏟기
테이프보급소 자리에 구제물품 창고 설치 어느때나 구제토록

올 해 들어 우리 교회 구제방식에 뚜렷한 변화와 더불어 몇 가지 원칙들이 세워졌다. '모든 구제는 물품으로 한다'는 것과 '비정기 구제를 교인뿐 아니라 가난한 불신자들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일들을 보다 광범하고 지속적으로 감당기 위해 '예산을 대폭 인상(1억에서 5억으로)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들의 배경을 이루는 보다 근본적인 관심은 가난한 성도와 이웃들에 대해서 온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을 일으키고자 하는 데 있다.

그동안 구제는 사무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다루어져 온 편이다. 정기구제나 특별구제의 시기가 되면 교구별로 구제대상자 명단을 올리고, 봉사위원회의 집행으로 구제가 완료되는 것이 통례였다. 따라서 이 구제의 과정에는 성도들 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보다 지속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는 매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금년부터 실시되는 구제는 교역자뿐 아니라, 구역 성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먼저 교역자들의 관심과 구역 식구들의 추천을 통해 구제대상이 생기게 되면, 교역자가 방문하여 따뜻한 관심과 함께 구제물품교환권을 건넨다. 그리고 구제 대상자를 위해서 구역 식구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구제물품을 날라주고 따뜻한 관심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효과적이며 관계 형성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적으로는 구역식구들의 지속적인 보살핌을 통해 사랑과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성도들은 '사랑을 수단으로 삼은 복음 전파'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복음이 없는 동정론'에 치우치거나 하는 이중적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복음'을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면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사는 이웃들 중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잘 살펴 구제대상으로 교회에 추천하고, 또 이미 구제대상이 된 지체들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등 지속적인 구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다.

교구별 영성훈련

3월 17일부터

돌아오는 17일(화)부터 봄철 교구별 영성훈련이 재개된다. 지난 추동기간에 끝내지 못했던 16교구와 12교구 각각 17일과 19일에 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3월 24일부터는 매주 화, 목 양일에 걸쳐 1교구부터 다시 영성훈련을 재개하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원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교구 식구들 간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하나됨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교구별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미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얻은 바 있으며, 이는 금번 기간을 통해서도 계속 되리라는 전망이다. 교구 식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부지역장·구역장 영성훈련 3월 11일 수요일부터는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구역예배 인도자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부지역장·구역장 영성훈련이 시작되었다. 첫 강의는 김성관 위임목사가 맡았다.

부지역장·구역장 훈련

지난 11일 시작돼

18일부터는 교구별 장소에서

지난 11일(수) 1부예배 후 12시 30분부터 위임목사의 강의로 시작된 부지역장·구역장 훈련이 이번 주부터는 교구별로 실시된다. 교회문을 시작으로 해서 구역장론, 구역운영론, 구역심방론 등 총 12과목 24시간으로 진행되는 금번 훈련은 넷째주부터 위임목사의 특강으로 매듭지어면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주부터 진행되는 훈련의 교구별 교육 장소는 아래와 같다.

교구	장소	교구	장소
1	교육관 314호	2	베다니홀
3	교육관 301호	4	교육관 212호
5	교육관 307호	6	교육관 109호
7	할렐루야홀	8	영아부실
9	교육관 201호	10	아멘홀
11	나사렛홀	12	교육관 414호
13	사랑부실	14	호산나홀
15	교육관 205호	16	교육관 407호
17	임마누엘홀		

남성도 구역장 교육

3월 18일 수요일2부예배 후 베다니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남성도 구역예배의 효과적인 인도를 위하여 남성도 구역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이번 18일부터 수요일2부예배 후 베다니홀에서 실시된다.

현재 남성도 구역예배는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참여함으로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이 예배모임이 보다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석과 온 성도들의 기도의 지원이 절실하다. 한편 남성도 구역예배를 위한 공과교재가 따로 편집 제작되어 지난 주 중으로 배포되었다.

알림

차량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교회내 차량 질서 유지를 위해 봉사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성도들의 은혜로운 예배를 돕고, 안전과 질서 유지 및 교통 정리와 주차 안내를 위해 뜻이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차량관리부실(본당 지하 1층, 구내번호 284)

현금위원 교육

예배 각 부의 현금위원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영적인 준비와 실제적인 이해가운데 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이 아래와 같이 실시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어 유익한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시: 1988. 3. 27(금) 오후 5:30

장소: 본당

대상: 예배위원회 산하 각 부

현금위원 전원

강사: 박경환 목사, 장영자 전도사

* 교육 후 식사 제공합니다.

장학금 수여식 지난 주일 오후 4시 교육관 307호에서 거행된 장학금 수여식에서 160명의 중·고·대·대학원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이들이 학업과 사명 안에서 인정받는 열매들로 세워지도록 성도들의 계속적인 기도가 요망된다.



유다 민족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이사야 14:1-3)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우는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의 죄가 아무리 커도 모두 용서하여 희게 짓어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십니다.

김창인 목사

오늘은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려 보내시는 약속을 성취시키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 자기 고토에 두리시니 ...”(사 14:1) “...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사 14:2)라는 말씀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어 고국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0:67장에서 더 자세히 예언되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범죄한 결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아주 없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셨다는 약속입니다.

1.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1절)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벨론은 멸망시키고 유다 민족에게는 복주시기로 돌아오는 구원을 주셨습니까? 유다 민족을 고국으로 돌려 보내시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1) 유다 민족이 의로운 조건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유다 민족에게 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 민족이 거룩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부추려진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2)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엘리미아와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벨론에 포로가 된 유다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유다를 아꼈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 14:1)라는 말씀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건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서는 강한 자이고 야곱은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강하다고 뽐내며 교만을 피우는 자의 편이 아니시고 자신의 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약자를 불쌍히 주십니다.

부자에게 선물을 가져 가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강한 자를 섬기기 위하여 약자의 동거자를 빙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죄인이 회개할 때에 불쌍히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거짓말쟁이, 도적 놀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했고 도적질을 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할 때에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을 자랑합니다. 조금 잘하고도 칭찬을 많이 받으려고 과장선전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우는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의 죄가 아무리 커도 모두 용서하여 희게 짓어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십니다.

2. 유다 민족에게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리시니 ...”(1절)

‘다시 택하여’란 말씀은 이미 믿던 자가 죄를 많이 범하고 회회를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하여 다시 신자의 권리를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기 고토에 두리시니’란 예닐곱의 계산을 다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토는 젖과 풀이 흐르는 땅으로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성서라고 지적 주시는 피난처로서 온전 자가 없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땅입니다. 이런 ‘고토’를 다시 주어 생활을 넉넉하게 해 주시고 또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3. 겸하여 다른 복도 주십니다

(1) 나그네들이 유다 민족에 귀화될 것입니다

“...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한 것이며”(1절)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받아 고토로 돌아올 때에 바벨론에서 나그네된 여러 족속들이 따라오겠다는 말씀입니다. ‘나그네’란 나라가 망하여 돌아오지 못할 처지가 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족속을 말합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젖과 풀이 흐르는 땅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는 나그네 된 여러 족속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다 민족을 따라가서 유다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수아 장군을 선두로 하여 가나안의 성인 예리코를 점령할 때에 기생과 합은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였습니다. 젊은 과부 롯은 백성의 백성인 시모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며 효도하기 위하여 외친바와 본토와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였습니다.

여기서 큰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신자가 자기의 책임을 바로 감당하여 빚과 소금의 책임을 다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자가 하나님이 준바를 하신다 내려 주시는 복을 받아 잘 살게 되면, 임의로 예수님을 믿라고 교회 전에 불신자들이 먼저 자기 믿고 회를 찾아 옵니다. 이것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아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연합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욕을 돌리고 한국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 매를 맞고 있으면 아무런 전도를 해도 교회는 점점 쇠퇴할 것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가 복을 받는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연합하기를 얼마나 큰 복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2) 유다 민족의 지위(권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와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겼고 전에 자

기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2절)

이 말씀은 권세를 가진 자가 억지로 대접을 받는 것과는 달리 권위 앞에 존경어린 충성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자연히 권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3) 유다 민족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3절)

첫째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는 슬퍼했는데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니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둘째로, 곤고가 물러 가고 해방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곤고”란 남의 종으로서 뼈가 아프도록 힘들어 늘어나도록 일할 때의 피곤을 말합니다. 다리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 중에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니 자기의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셋째로,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여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는 연약한 약자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인 줄 알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여 인내로 책임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용서 회개하고 겸어 버리기를 원하는 자를 불쌍히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책임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다시 주시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불신자들이 자기 잘못 찾아와 회개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눈물이 웃음으로, 가슴 치는 한숨이 찬소를 부르는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

다움 주일 설교



김성목 목사

산 소망

(베드로전서 1:3-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찬송하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3절). 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산 소망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이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능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후회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말씀을 직선적으로 계시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 간단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죽기까지 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반석에 비유하신 것은 그저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의 영감어진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완전히 이해해야 할 반석같이 건설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믿습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첫째로 삼으신 아부였습니까. 또한 물 위를 걸었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목격한 그의 모든 개인적 경험은 그의 눈을 열었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는 산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믿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거듭나는 것을 몰라보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예수께서는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능력있는 일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산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다.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다시 죽음을 맛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두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한 번의 사건으로 모두 이부셨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열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

서 주시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되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19절).

당신을 위한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5절).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그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자라는 사실을 잘 드러냅니다. 구원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안에 산 소망을 갖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13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합당한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고 자신을 몰라보 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믿음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 뵈게 될 때에 우리의 산 소망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세상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 내어야 합니다. 날마다 경건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끝까지 강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7). 이 세상은 아무런 자랑도 없지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산 소망을 갖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요일 2:25)!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천국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 제직과 은성도들이 주님 주신 산 소망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5절).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자라는 사실을 잘 드러냅니다. 구원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안에 산 소망을 갖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합당한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고 자신을 몰라보 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 뵈게 될 때에 우리의 산 소망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세상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 내어야 합니다. 날마다 경건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끝까지 강건할 수 있습니다.

본과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그 본과의 관례에 전적인 기초가 됩니다. “대지 하나님께 세상이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겠느니라”(21절). 주님의 관례는 실로 놀랍습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

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계 1:17-18).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산 소망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4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원히 영광스러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명예와 부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선교

선교의 성경적 근거 3

선택의 의미와 선교

아브라함의 소명

바벨탑 사건 이후의 하나님의 계시는 한 특정한 종족, 곧 이스라엘에 집중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물론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만이 한 특정한 종족을 선택하신 것은 결코 그의 구원 계획이 축소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구원 역사는 이제 열방을 구하기 위한 특정인의 선택을 통해 계속되어진다.

'태초' 이후 지상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죄는 모든 것을 파괴시켰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골라내어 '선택된 백성의 첫 조상'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순수한 은혜 가운데 부르신 행동이었다. 여호수아 24장 2절, 14절, 15절은 아브라함(부친 테라와 형제 나홀과 함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선교를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 그것은 모든 열방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경배할 그날을 준비하는 첫번째 조치였다(롬 14:11; 사 45:23; 빌 2:10). 그가 족장들을 구별하여 세운 것은 저들을 만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선택받은 선교의 일꾼 중의 첫 모델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그의 신뢰를 표현하였다.

이스라엘의 구별

이스라엘의 구별이 만민에 대한 관심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구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상 필요한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때가 차면 철회될 것이었다. 아브라함이 우로부터 구별되어 나올 때도 아브라함 속에서 만민이 복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다(창 12:3). 이러한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와 관련하여 더 강력하게 반복되었다(창 22:18).

이스라엘의 구별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은 이방 구원에 관한 예언들의 씨앗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봉사와 선교의 수단이기 때문에 책임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선택을 통한 봉사가 아니라 봉사 때문에 선택되었으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암 3:2).

선택의 의미

선택은 언제나 봉사를 위하여 허락된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스라엘은 때로 이 선택의 의미를 이기적으로 오해하여 자기들만을 위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방 민족에게 관심을 소홀히 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이다(사 49:6). 선택은 이스라엘이 다른 여러 나라로부터 구별되어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고 종국에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설정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이 사명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또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그 사명과 거리가 멀게 바꾸어 버리거나 할 때에 그들은 심한 책망을 받게 되었다(레 16:44-45). 하나님은 그 목적적인 바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그가 주시는 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저들이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받는 은사인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그의 선택된 일꾼들에게 그가 위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다.

이방인의 유대나라에의 가입

성경이 32장 8절은 인류를 여러 민족으로 구분하신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뜻이 내포된 것임을 보여 준다. 열방은 주변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과 활동의 중심에 있다. 만민은 하나님의 창조와 손에서 출생했고 그의 인애와 심판 앞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그의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다.

구약은 모든 나라에 선교해야 할 근거와 의미를 제공한다. 구약에서 이방 선교의 동기를 찾을 때, 흔히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거나 이스라엘의 신앙을 받아들인 인물들, 즉 뜻이나 나라이나 같은 사람을 예로 들기도 하고 선지자들의 글에서 우주적인 교훈을 찾기도 하고, 요나사나 이사야서에서 우주주의에 대한 색깔이 강한 사상을 찾기도 한다. 이 모든 사실들과 더불어 이방인이 유대나라에 가입된 것은 장차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미리 암시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변 국가의 문화와 종교와의 접촉에서 오염되지 말 것을 명령하셨으며, 가나안 7족을 철저히 정복할 것을 요구하셨다. 그러나 한편 이방인이 유대에 가입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출애굽 때 "종다한 잡족"(출 12:38)이 이스라엘을 따랐으며, 모세의 처가는 미디안 족속이었으며(민 10:29), 갈렙과 웃니엘(민 32:12)은 유다 지파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겐 족속으로 신앙적으로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우월하였다.

(선교위원회 제공)

알림

선교사 자녀에게 책을 보냅니다

선교위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헌신에서도 고국을 잊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적극 동참하시어 보낸 자들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종류: 초중고등학생 양서(성경, 예세이, 위인전, 유익한 만화, 논술교재)
- 접수: 선교위원회 사무실(선교관 406호)

선교수련회를 다녀오시

"두려워말고 담대하라"

이 선 화(대하복)

단 기선교를 지원하고자 할 때 저는 주님께 저를 내어 드리고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너무나 나태하고 풍족한 내 생활의 환경이 나를 잠자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때로 예비하신 길을 확실히 보여주시길 소원했고 단기선교를 통해 준비되고 훈련받은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내어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알지 못하고 개인적인 연단의 기회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전심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의 길이 저에게는 아직도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수련회 기간 중 받은 말씀은 저는 주님의 것이고 죽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두려워말고 담대하라는 것, 그리하면 승리하시리라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리라라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붙들고 제 자신을 버리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선교지로 가는 길이 빛으로 보이도록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수련회를 기쁜 마음으로 오게 하시고 은혜를 받고 나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